

그라운드 휘젓는 우린 KIA 새 엔진 '트리플 세터'



테이블 세터? '호랑이 군단'은 트리플 세터다.

지난 주 KIA는 부쩍 자란 NC, 천적 두산과 승부를 벌여 3승3패를 수확했다. 선발 김진우와 필승조 심동섭의 부상 등 마운드 누수 속에 치른 6연전. 아쉬운 대로 5할 승률을 찍었다.

마운드 약점을 만회해준 것은 이대형·김주찬·신종길로 이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세터'다. 그냥 트리플 세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광속' 트리플 세터다.

시작은 이대형·김주찬 테이블 세터였다. 두 사람만으로도 어느 팀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1·2번 이기는 했다. 두 사람은 2010년 도루왕을 놓고 숨막힌 경쟁을 벌인 대도들이다. 당시 LG 소속이었던 이대형은 66개의 도루로 김주찬(당시 롯데)을 한 개 차로 따돌리며 4년 연속 도루왕에 올랐다. 김주찬은 도루왕 타이틀을 훔친 적은 없지만 '발'하나 만으로는 프로야구에서 알아주는 인물이다. 역대 도루 순위에서도 전준호(550), 이종범(510), 정수근(474), 이대형(379), 이순철(371), 김일권(363)에 이어 전체 7위다.

여기에 단순 스피드만으로는 뒤지지 않는 신종길이 3번에 위치하면서 광속 트리플 세터가 완성됐다. 4일 두산전에서 상승세의 신종길이 3번, 3번을 지키던 이범호가 5번으로 이동하면서 KIA 스피드에 가속도가 붙었다.

1회부터 이대형의 3루타와 김주찬의 2루타가 이어지는 등 트리플 세터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6-0 승리를 만들었다. 득점도 이들이 모두 책임졌다.

2-0으로 앞서 5회 득점 장면은 트리플 세터의 위력이 발휘된 장면이었다. 이대형이 중전 안타로 출루한 5회, 김주찬이 낮은 볼을 걸어올려 연속 안타를 만들었고 일제감각 스타트를 끊은 이대형은 3루까지 내달렸다. KIA는 신종길의 안타와 도루



김주찬



신종길

**KIA 1번 이대형·2번 김주찬·3번 신종길
 정교한 타격·빠른 발로 중심타선에 '밤상' 차려
 불펜 약점 만회... 초반 순위 싸움의 원동력**

까지 더해 3점을 한 번에 뽑으며 승기를 잡았다.

9-6 승리를 거둔 5일에도 트리플 세터 효과가 있었다. 3-2로 앞선 7회, 안치홍의 3루타에 이어 이대형의 중전안타가 터졌다. 상대가 알아서 무너졌다. 빠른 주자 이대형과 빠른 타자 김주찬, 마음이 급했던 상대 유격수 김재호가 땅볼 타구를 흘리면서 무사 1·2루가 됐다. 신종길의 번트 타구 때는 1루수 오재일의 약송구가 나왔다. 스피드를 의식한 수비진들의 잇단 실책에 KIA는 손쉽게 5점을 만들었다.

앞선 NC전 승리에도 상대 실책이 있었다.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8회, NC 2루수 박민우가 이대형의 땅볼 타구를 약송구했다. 이어진 1사 1·3루에서 베테랑 투수 손민환까지 공을 더듬으면서 KIA는 1-0 승리를 거뒀다.

절대적인 스피드 위력에 상대 실책까지 유도

하는 상대적인 위력까지. '실책 유발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트리플 세터가 KIA 마운드 약점을 채우는 특별 전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트리플 세터

테이블세터는 야구에서 1번 2번타자를 합쳐서 쓰는 용어다. 빠르고 출루율이 높은 타자를 배치해 중심타선의 타점 확률을 높인다. KIA는 3번까지 테이블 세터 유형의 빠른 타자가 배치되면서 '트리플 세터'로 통한다.



추, 나가기만하면 결승득점

템파베이전 승리 견인

추신수가(32·텍사스 레인저스)가 투아웃 후 천금 같은 내야 안타로 출루해 결승 득점의 밑거름을 닦았다.

추신수는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이를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73(22타수 6안타)을 기록했다. 그는 0-0으로 맞선 8회 2사 주자 없는 4번째 타석에서 출루에 성공했다. 상대팀 우완 선발 투수 알렉스 코브에게 삼진(1회), 좌익수 뜬공(3회), 중견수 뜬공(6회)으로 묶인 추신수는 8회 바뀐 투수 호엘 페랄타와 콜카운트 접전 끝에 7구째를 받아쳐 내야 안타로 1루를 밟았다.

7회까지 상대 마운드에 단 3안타로 봉쇄당한 팀에 대비하고도 같은 안타였다.

추신수가 1루에서 도루 모션을 취하며 템파베이 배터리를 괴롭히자 후속타자 엘비스 안드루스가 곧바로 득을 봤다. 안드루스는 풀 카운트에서 페랄타의 몸쪽 높은 빠른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날렸다. 텍사스는 2-0으로 앞선 9회 도니 머피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 3-0으로 쐈기를 박았다.

목동중으로 이날 시즌 첫 경기에 등판한 텍사스 에이스 다르빗슈 유는 7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맞았으나 삼진 6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역투해 마수결이 승리를 안았다. /연합뉴스

윤석민 첫 출격

오늘 트리플 A 선발 등판

윤석민(볼티모어)이 예정보다 하루 늦은 8일(한국시간) 트리플 A 첫 등판을 소화한다.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에서 시즌을 출발하는 윤석민이 8일 노포크의 하버파크에서 열리는 그윈넷 브레이브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윤석민은 7일 샬럿 나이트(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와 경기에 출격할 예정이었지만 메이저리그 일정 탓에 등판이 하루 미뤄졌다.

볼티모어는 6일 더블헤더를 대비해 노포크 소속의 케빈 거스먼을 대기 시켰다. 하지만 5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리면서 거스먼의 메이저리그 등판도 없던일이 됐다. 결국 4일 노포크 개막전 선발을 준비했던 거스먼이 5일 샬럿과의 경기에 출전하면서 선발들의 등판 일정이 하루씩 밀렸다. 이에 따라 윤석민도 7일이 아닌 8일 첫 등판을 한다.

윤석민은 이번 등판을 통해 자신을 확실히 어필 할 필요가 있다.

늦은 계약과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시즌 준비가 늦었던 윤석민은 마이너 경쟁에서도 한발 뒤쳐져 있다.

볼티모어는 더블헤더로 인한 마운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체선수로 거스먼을 우선 선택했다. 순서상으로는 4선발로 트리플 A 첫 등판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민이 버리 그 마운드를 맡기 위해서는 경쟁자들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첫 등판은 그래서 윤석민에게 중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넥센·롯데 불방망이 막아야 산다

프로야구 전망대



박병호·이성열·손아섭 등 막강 타선

임준섭·박경태 출격...부진 만회 나서

위기의 마운드가 진짜 시험무대에 선다.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막강 타선'을 만난다. KIA는 주중 목동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를 만나고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롯데와 3연전을 벌인다.

타선의 파워로는 손에 꼽는 두 팀과의 대결이다. 김진우와 심동섭 등 선발과 불펜의 핵심 요원이 빠진 KIA 마운드가 내구성을 시험받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임준섭이 가장 먼저 넥센의 불방망이를 만난

다.

이적생 윤석민이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방망이 실력을 선보이고 있고, 이성열·이택근도 두 차례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MVP 박병호와 김민성·문우람·유한준도 마수결이 포를 쏘아올리는 등 이미 9개의 홈런이 쓰여졌다. 외국인 타자 로티노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타선의 힘이 막강하다.

임준섭은 NC를 상대로 한 첫 등판에서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지만 6회 나성범에게 투런포

등을 얻어맞는 등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4실점을 하고 내려왔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박경태도 땀을 보여줘야 한다. NC전에서 선발로 나선 박경태는 3.2이닝 8피안타(2홈런) 1볼넷 9실점의 기록을 남겼다.

로테이션상으로는 임준섭에 이어 박경태·홍튼이 나란히 넥센전에 출격한다. 당분간 돌아올 전력도 없는 마운드에서 불안한 출발을 했던 임준섭과 박경태의 역할은 막중하다.

손아섭·최준석·박종윤·강민호·황재균이 나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롯데 타선의 짜임새도 좋다. 최준석이 이적 후 처음으로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상승세를 타면서 타선을 움직이고 있다. 송은범·양현종은 롯데 타선을 상대로 주말 2승 사냥을 하게 된다.

마운드 빈틈이 있기는 하지만 이대형·김주찬·신종길 '트리플 세터'의 매서운 움직임 속에 중심 타선도 꿈을 대고 있다. 필이 시범경기의 우려를 털고 0.423의 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20타석

■ 프로야구 강간순위 (4월 7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SK	8	6	2	0	0.750	0.0
2 NC	6	4	2	0	0.667	1.0
3 롯데	5	3	2	0	0.600	1.5
4 KIA	8	4	4	0	0.500	2.0
4 넥센	8	4	4	0	0.500	2.0
6 삼성	7	3	4	0	0.429	2.5
7 LG	5	2	3	0	0.400	2.5
8 두산	8	3	5	0	0.375	3.0
9 한화	7	2	5	0	0.286	3.5

에서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던 나지완도 6일 경기에서 처음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개막 후 험난했던 8연전에서 KIA 마운드는 3.68의 평균자책점(3위)을 기록하면서 나름 선발을 했다. 파워의 넥센과 롯데를 상대로 마운드가 안정세를 유지할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